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8. 17(금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김인곤</li> <li>• ☎ (044) 201-4211, 4212</li> </ul>
	항공기술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장여진</li> <li>• ☎ (044) 201-4311, 4293</li> </ul>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“비행기 정비 제대로 하겠다며 아시아나, 200개 항공편 없애”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특별점검(‘18.7.22~8.10)을 실시하였고, 이를 기초로 하여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정비 시간 확보를 권고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감편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.
-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- 정부는 국민의 항공교통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, 충분한 정비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, 8.17) >

<p>◆ 비행기 정비 제대로 하겠다며 아시아나, 200개 항공편 없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부가 “항공편을 줄이라”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비행편 중 200여편의 운항을 취소</li> <li>-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둔 1만5000여명이 불편을 겪어</li> </ul>
---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고성우 사무관(☎ 044-201-4211), 항공기술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3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